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예배하기 위해 주의 품에 안길 때 /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같이
대표기도		전혜나
*성경봉독	눅 8:26-39	최효은
말씀	예수의 실체를 받아들이십시오!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슬픈 마음 있는자(예수 예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슬픈 마음 있는자 (예수예수)

(1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후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불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브릿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후렴반복)

예수의 실체를 받아들이십시오! (눅 8:26-39)

26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27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28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9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여 뒤도 다 끊어 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간 흔했습니다.)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32 마침 많은 돼지 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33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 떼는 비탈진 독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군대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관해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는 이방인 마을로 가십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귀신들린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자는 옷도 입지 않은 채(27), 무덤에서 산 지 오래 되었고(27),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으며(29), 쇠사슬에 묶여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29) 사실, 살아는 있으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 상에 있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영혼을 붙잡는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군대귀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귀신들린 자가 먼저 와서 예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악한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심지어 쇠사슬도 묶을 수 없었던 그가 스스로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 잔잔해진 것처럼, 군대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 “군대”의 원어는 legion (레기온, 리전)으로 로마군의 제대 이름입니다. (약 6천명) 군대귀신은 집단으로 함께 다니는 악한 영인데, 성경은 이런 집단적인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눅 11:26) 당시, 이 지역은 모두 로마군 (레기온)의 통치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통치군이 주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찬탈한 것처럼 군대귀신도 이 사람에게 들어와 그를 통치하고 그 삶을 송두리째 찬탈해 갔습니다. 예수께서 군대귀신을 쫓아내시자, 군대귀신은 지옥대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길로 막 뛰어가 모두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난해구절) 이 말씀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영혼 구원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돼지 떼의 죽음은 물론 큰 희생이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눅 15장, 찰스 스펄전)

이 사건 이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 회복”**을 경험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자원합니다. 군대귀신이 들었던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면, **마을사람들은**, 귀신들렸던 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인적 권능과 권위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증인과 예수의 관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 따르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귀신들렸던 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마을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상식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이 싫었습니다. 만약에 생길 지 모르는 추가적 희생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익숙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떠나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예수를 단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좋은 분이신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를 단지 아는 사람들은 교회다니는 것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될 때는 좋아하지만, 내 삶에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올인하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치관을 초월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삶이 변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라사에 일부러 찾아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요 6:39) 예수님은 **2천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구함으로써, 이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비천하게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녀가 존귀한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들린 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 모습은, 살아 있으나 사망권세에 얽매었던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친히 감수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님, 마을사람처럼 살려고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은혜를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읍시다. 그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분의 은혜를 피부로 체감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자가 그랬던 것처럼...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2.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나를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나를 회복시키신 은혜를 충분히 느끼며 감사하십니까?
3.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관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부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기급적 현장예배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주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optional)으로 변경됩니다.

김상범 전도사 목사 안수 및 위임식

6월 19일 (오늘) 오후 4시, 본당
Youtube 실시간 중계 제공됩니다.

2022년 수련회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장소 : Camp Buckner (3835 FM 2342, Burnet, TX 78611)

목장 방학

목장 모임은 6월말까지하고,
두 달간(7월, 8월) 공식적인 목장모임은 쉽니다.
(7, 8월에도 현재의 목장은 유지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염평안, 조찬미, 임성규) 찬양 콘서트

7월 9일 (토) 오후 5시, 본당

베이비시터 지원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교리산책이 진행되는 동안
child care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 : 6월 25일 (토) 9:30~11:30 AM
1~2명 (유급)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양육기간 : 총 16주

환송

이윤규 형제 (제대 후 대학원 진학)

팀원 모집

새가족팀 (문의:하지수)
찬양팀(문의: 김태동)
예배팀(음향, 문의: 신승윤, 박정호)

새가족/방문자 등록 카드
교회 웹사이트 청년부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CAN ME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24호

JUN 19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